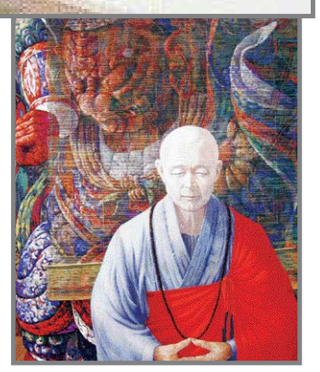
잠깐! 이 전시

블록버스터전 부럽지 않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회가 풍성하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모나리자의 콧수염'전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 박주하 작 '사랑'

▲ 황영성 작 '가족이야기'



▲ 이강하 작 '맥-선'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화랑가에서
풍성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화 전시를 비롯해
회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전 등
풍성하다.
이들 전시회의 차별화된 컨셉트와
구성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버스터전 못지 않는다.

시립미술관 '만화전' '모나리자의 콧수염전'…
지역 화랑가 알토란 같은 전시 관람객 유혹

광주시립미술관의 '만화 만화(慢畵 萬話)'전(21일까지)은 공포의 외인구단'의 까치, '발바리의 추억'의 김달호, '불청객'의 구영탄 등 만화 속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전시로, 방학을 맞은 청소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부터,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만화 웹툰까지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를 100점의 만화로 소개하고 있다.

또 김경호, 권용득, 하민석, 배종민, 김한조, 고영일, 김수박, 최인선, 장경섭, 변병준, 채민씨 등 17명의 작가들이 옛 만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 17점을 함께 선보인다.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 성인 500원. 문의 062-510-0227.

시립미술관 상록분관에서 열리는 '모나리자의 콧수염'전(21일까지)은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전시회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 앤디 워홀의 '모나리자' 등이 젊은 작가들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 전시에는 외국무대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김동유, 이이남씨를 비롯해 고근호, 권여현, 조대원, 양문기, 조윤성, 이동재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해 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명화의 재발견', '명품 & 짝퉁', '스타 메이킹'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명화의 이미지를 빌려 현대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다양한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또 마릴린 먼로나 마오쩌둥, 앤디 워홀 등 유명인사들을 독창적인 조형법과 재료를 사용해 현대적인 느낌으로 만든 초상화도 인기다. 문의 062-369-3515.

광주신세계갤러리의 'Geometric Dimensions-미국 기하추상 3인전'(8일까지)은 20세기 중반 나타난 회화 양식인 미니멀리즘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문의 062-360-1630.

시립미술관 '신 소장품'전(5일~5월30일)은 미술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사들인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천경자 화백의 여인, 꽃, 동물, 누드와 고 배동신 화백의 수채화 등 남도 회화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망라됐다. 문의 062-510-0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서 '유네스코 문화예술' 포럼

3일 비엔날레 세미나실 … 5월 세계대회 앞두고 우수사례 발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앞두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협력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포럼이 광주에서 열린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어령)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제1차 네트워크 포럼'을 광주비엔날레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문화기관 및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변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양지연(동덕여대 교수), 전고필(광주 북구문화의 집 상임위원)씨가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예술 교육과 프로그램 동향' '지역기반 커뮤니티 예술기관의 도전과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강정현(전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씨가 '공공 문화재단의 사회적 역할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발제한다.

원금옥(국립중앙박물관 교육팀),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교수), 박형주(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김보영(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전시기획), 윤현옥(예술가)씨 등도 패널로 참여, '문화시설 문화예술교육의 도전과 과제' '예술가의 사회적 조건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토론한다.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유네스코 세계대회는 지난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대회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예술교육 분야의 세계 최대 행사다. 문의 02-2075-63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광주무대

6~7일 문예회관 대극장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존심 '명성황후'가 오랜만에 광주를 찾는다. 6일(오후 3시·7시), 7일(오후 2시·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초연된 '명성황후'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였던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소설가 이문열의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한 '명성황후'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 화려한 의상과 세트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명성황후가 피날레 장면에서 부르는 '백성이여 일어나라'는 관객들의 감정을 고조시키며 깊은 감동을 준다.

뮤지컬은 1866년 고종과 민자영의 혼례부터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주인공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삶을 그려나간다.

'명성황후'는 12년간 수차례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 지금까지 1천회 공연 120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됐다.

주인공 명성황후 역은 오랫동안 주역으로 출연, '명성황후'의 대표 배우로 꼽히는 이태원과 이상은이 더블 캐스팅됐으며 김진태·임철형·박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한국 연극계의 대부 윤호진씨가 맡았다.

티켓 가격 12만원~5만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